

2020 Climate Scouts

활동보고서



CONTENTS

I. Climate Scouts		IV. 활동 내용	10
프로그램 개요	04	1. 초등교육	10
II. 2020 Climate Scouts		2. E-book	22
프로그램 소개	05	3. 기고문	24
III. 참가팀 소개	07	4. #쿨쓰의면쓸리챌린지	25
		5. SNS 활동	26
		6. Voice from the Young	27
		V. 활동 후기	30





I. Climate Scouts 프로그램 개요



목적

Climate Scouts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중 기후변화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2015년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2016년 1기를 시작으로 2020년 Climate Scouts 5기를 배출했습니다. Climate Scouts의 주안점은 ① 다양한 분야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과 대학생들과의 소통 ② 대학생들과 초등학생들 간의 소통 및 교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대 간의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의 현 문제를 인지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기후 변화 인식 확산 활동을 통해 전 사회가 아울러 기후변화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성세대의 일방향적 지식 전달의 형식에서 벗어나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양방향 소통을 이루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이러한 지식을 전파하는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인식을 일으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기성세대의 역할은 미래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더 나은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그 중요성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Climate Scouts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관련 지식을 쌓고 있는 대학생들은 분야별 전문가 특강을 통해 더욱더 깊어진 지식과 넓어진 견문을 바탕으로 릴레이 교육을 시행,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면서 대학생과 초등학생 간 기후변화 특정 주제에 관한 생 각 공유와 지식의 전달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직접 현장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인식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데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들은 기후변화 관련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계기가 될 것이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방안을 찾는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결과물 도출

총 스카우트 수는 189명으로 2016년 33명, 2017년 35명, 2018년 39명, 2019년 27명, 그리고 2020년에는 54명의 Climate Scouts를 배출하였습니다.



II. 2020 Climate Scouts 프로그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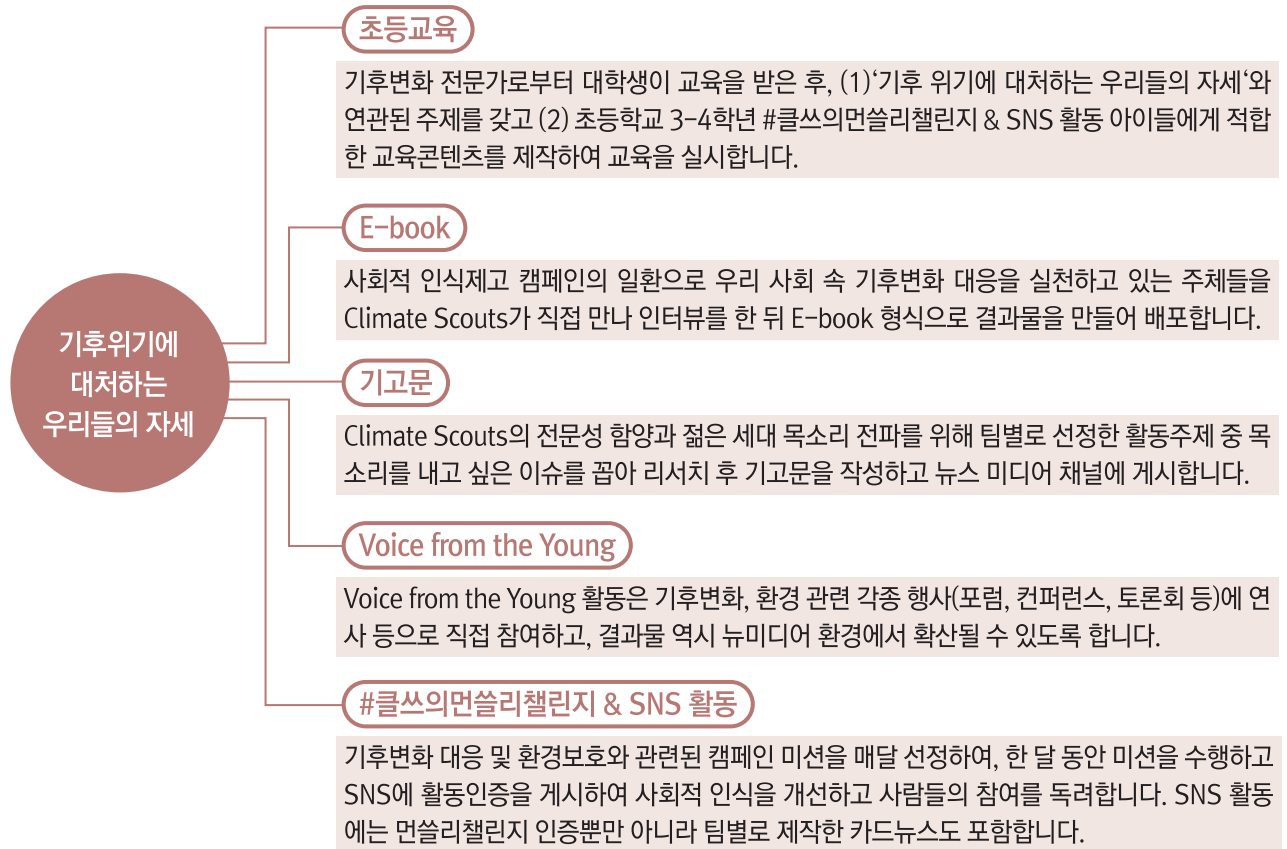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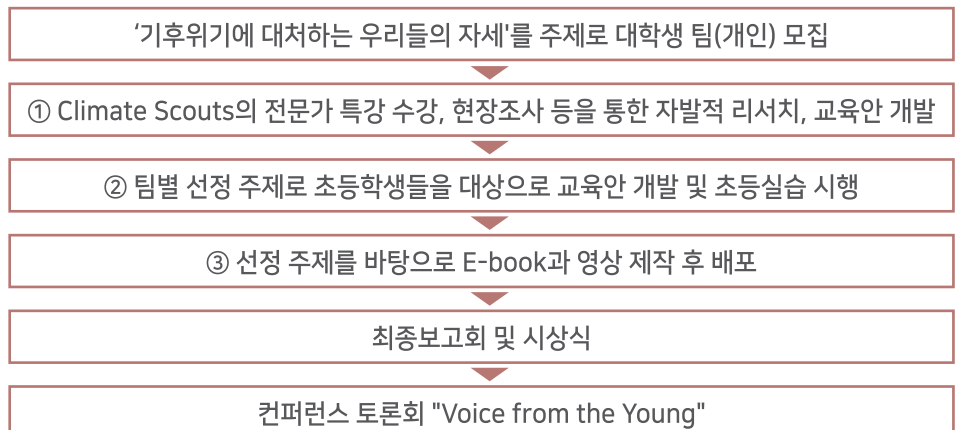
2020 Climate Scouts는 4월 발대식/OT를 시작으로 10월 수료식까지 총 7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Climate Scouts는 5기로 5명씩 11팀, 총 54명의 대학생들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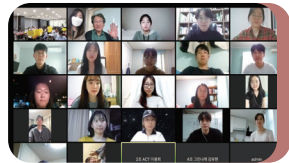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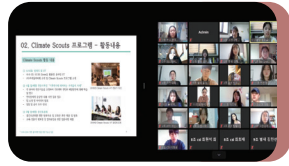
2020 Climate Scouts의 주제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요약



타임라인



발대식 및 OT

- 장소: 온라인
- 일시: 2020년 4월 4일, 10:30 - 11:30

전문가특강

- 장소: 서울 에듀이즈 이수 세미나실, Zoom 온라인 화상 회의
- 일시: 2020년 5월 16일, 09:00 - 18:00

<강의 이름 및 강연자>

-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도시의 위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유가영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 재해위험경감-기후변화적응 넥서스: JHSUSTAIN 개발협력컨설팅 박지현 대표, Michael Bak 팀원
- 쓰레기를 넘어 순환경제로 가는 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COP26: 강해나 주한영국대사관 담당관
- Why we do what we do: 서훈주 Climate Scouts 4기
- 기업의 기후 행동: 1.5도씨를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 박글 UNGC Korea 선임연구원

중간토론회

- 장소: KAIST 서울 홍릉캠퍼스
- 일시: 2020년 7월 24일, 13:00 - 18:00

<멘토단>

- 김형운 부천중앙초등학교 교감선생님
- 신법기 부천 옥산초등학교 선생님
- 이성희 서울 강서초등학교 선생님
- 이정인 서울 금천초등학교 부장선생님
- 한수정 서울 금천초등학교 부장선생님

초등교육 실시

- 장소: 부천중앙초등학교
- 일시: 2020년 10월 19일 - 23일, 학급별로 시간 상이
- * 온라인 실시간 수업
- 4학년 1반: 10월 21일, 10:50 - 11:30
- 3학년 1반: 10월 22일, 10:30 - 11:10

E-book 발행

수료식

- 장소: 온라인
- 일시: 2020년 10월 30일, 18:00 - 19:10



III. 2020 Climate Scouts 5기 참가팀 소개



1조

A.N.D. 팀

친환경 소비의 필요성

팀명 'A.N.D'는 'Accept & Do'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자 함을 담았습니다.

- 김수진(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김지후(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서은채(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최재원(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홍다혜(제주대학교 회계학과)

2조

ACT 팀

기후변화의 실질적 해결책, 숲

'ACT'는 'Answer Climate Trouble'의 약자로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ACT의 사전적 의미로 '행동하다.', 즉, 기후위기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활동하겠다는 의미와 두 번째, 'ACT; Answer Climate Trouble'의 축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박소영(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에코환경과학 전공), 이신혜(강원대학교 산림경영학과), 이용희(건국대학교 지리학과), 한설희(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황상희(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에코환경과학 전공)

3조

SEESTAR 팀

Crisis of Human by Human ('기후재앙' 심각성 재고)

팀원들의 전공 영문명인 'School of Earth & Environmental Science'의 약자 'SEES'와 미세먼지를 해결하여 많은 별들을 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STAR'를 합쳐 'SEESTAR'라는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5개의 점을 이으면 별 모양이 되는데, 저희 5명이 각각의 별 꼭짓점이 되어 환경 분야에서 하나의 별이 되자! 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 김나현(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김택인(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안혜진(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정수현(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정승환(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4조

그린나래 팀

의식주로 실천하는 녹색생활

'그린나래'는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의 순 우리말로, 그란을 녹색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사용하여 '녹색 실천을 전파하는 날개'라는 뜻입니다.

- 권수연(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김유현(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전미령(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오수진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하민아(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5조 그린윗어스 팀

올바른 에너지 사용으로 기후변화로부터 고통 받는 지구 구하기

그린윗어스 (Green with us/earth)는 ‘어스’가 ‘우리(Us)’와 ‘지구(Earth)’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Us)와 같이(with) 지구(Earth)를 위해 환경 그린/정화(green) 활동을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팀명입니다.

- 박정원(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영재(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윤찬주(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과), 이치호(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조윤희(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6조 비그린 팀

그린 스쿨 라이프

‘Be Green then Earth goes Green’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방식이 푸르게 변한다면 지구도 푸르게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 강예리 (UNIST 도시환경공학부 환경과학공학), 김혜서(University of Sydney 국제학부), 박소현(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지혜진(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7조 쓰담 팀

환경 용량의 한계로 인한 기후 위기

‘쓰담’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주제에 맞춰 환경용량의 한계로 기후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를 보듬고 아껴주자는 뜻입니다.

- 백하연(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윤동연(서울여자대학교 화학과), 윤지윤(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장소현(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하수민(계원예술대학교 순수미술과)

8조 CSI 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오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Climate scouts 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영역을 넓혀 가자는 취지를 가지고 팀명을 CSI(Climature Scouts International)로 정했습니다. 또한, 조원들의 학교가 인하대와 경인교대로 모두 인천이라 그것을 통해 소속감을 더 주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Climate Scouts Incheon)

- 백현(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이길한(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영훈(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최원석(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최희재(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9조 벌새 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소확행’

‘벌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초에 평균 80회씩 날갯짓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벌새의 겉으로 보기에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모습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 어떠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쏟는 생명력과 생존본능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팀명 ‘벌새’는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모였을 때 지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김민선(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수현(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김혜인(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조경림(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홍동완(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10조

플레이어 팀

무거운 플라스틱

팀명 플레이어(Player)는 Plastic + layer(막, 층, 경계)의 합성어로, 플라스틱을 포함한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플라스틱 사용에 layer(막)을 씌워 무분별한 사용을 중단 하자는 내용과 환경운동의 player가 되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는 목표를 담고있습니다.

- 김수림(금강대학교 행정학과), 문지원(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유수연(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이채은(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최연수(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11조

Y.E.S. 팀

플라스틱 사용, 딜레마일까?

Y.E.S.는 Youth Environment Scouts의 약자로,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해 언제나 자신감을 갖고 문제해결에 앞장서자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경문제에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함께 해결하자는 말에 기꺼이 모두 YES 를 외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한 걸음을 시작해보자는 각오를 담았습니다.

- 김수림(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주형(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이제민(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장현지(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전한경(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IV. 활동 내용

1. 초등교육



팀별 초등교육 콘텐츠소개

1조 A.N.D.팀

쓰레기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 인식

- (1) 쓰레기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실천할 경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가능성을 이해한다.

○ 1차시 영상 교육

바다거북이, 사슴, 그리고 갈매기 동물 친구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긴 고충들을 환경 요원이 된 아이들이 나서서 해결해주는 스토리입니다. 동물마다 다른 환경오염 상황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오염 사례를 시각 자료를 이용해서 제시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직접 행동 하는 영상으로 보여주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과 동물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인식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 2차시 수업 활동: PPT를 이용한 재활용 관련 퀴즈게임

모둠(4-6명)을 만들어 재활용 관련 퀴즈를 풉니다. 맞출 때마다 나무(점수)를 주는데, 환경에 도움을 주는 나무를 가장 많이 얻은 모둠이 승리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듯 지도 내 지점마다 퀴즈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으로, 팀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얻는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및 환경 초등교육’은 Climate Scouts의 대표 활동으로, 기후변화 전문가로부터 대학생이 교육을 받은 후, (1)‘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연관된 주제를 갖고 (2)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를 방문하기 어려워 교육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대체하여 진행했습니다.

팀별 초등교육 콘텐츠소개

2조 ACT팀

기후변화에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숲의 중요성 교육

- (1) 나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2) 나무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혹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1차시 영상 교육

‘나무맨’ 캐릭터와 ‘나무 가족’ 주인공들이 ‘이산화탄소와 나무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영상 콘텐츠로, 나무 가족이 직접 나무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영상 속 스토리가 끝난 뒤에는 OX 퀴즈가 진행되어 앞서 배운 나무의 역할을 한 번 더 익힐 수 있는 학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2차시 수업 활동: 환경 할리갈리 카드 게임

널리 알려진 보드게임 ‘할리갈리’를 차용해서 새로이 제작한 ‘환경 할리갈리’ 게임입니다. 기존 할리갈리 게임 방식을 기본 진행 방법으로 하되, ‘이산화탄소 그림이 5개가 모이면 종을 치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모이면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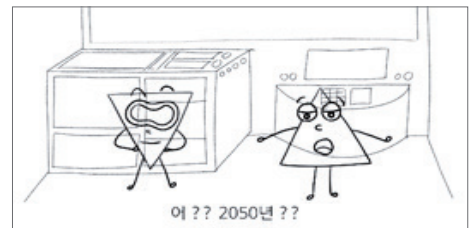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바로 알기와 예방

- (1)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알고 구분할 수 있다.
- (2)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3)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막는 방법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1차시 영상 교육

지구의 현재 시간을 살고 있는 ‘현재’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미래로 가지만, 미래의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기계가 고장 나면서 생기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래의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을 보며 현재의 지구를 미세먼지로부터 지키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영상을 보며 ‘현재’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해 배우고 타임머신 부품을 찾는 과정을 재미있게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영상을 보며 따라 할 수 있도록 ‘곡물 혼합물 분리하기’ 활동을 추가해서 미세먼지 크기에 대해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 2차시 수업 활동

앞서 시청한 영상에서 설명된 대표적인 미세먼지 예방법 세 가지, ‘KF94 마스크 착용’, ‘올바른 순서로 손 씻기’, ‘실내에 공기청정기 및 공기정화식물 두기’를 두 가지 실제 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 ‘마스크 목걸이 줄 만들기’〉

마스크를 잃어버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끈과 클립을 이용해서 간단히 마스크 목걸이 줄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 ‘공기정화식물 실내에 두기’〉

앞서 영상교육에서 소개한 공기정화식물을 하나씩 직접 키워보는 활동으로, 직접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의 책임감을 더해보았습니다.

팀별 초등교육
콘텐츠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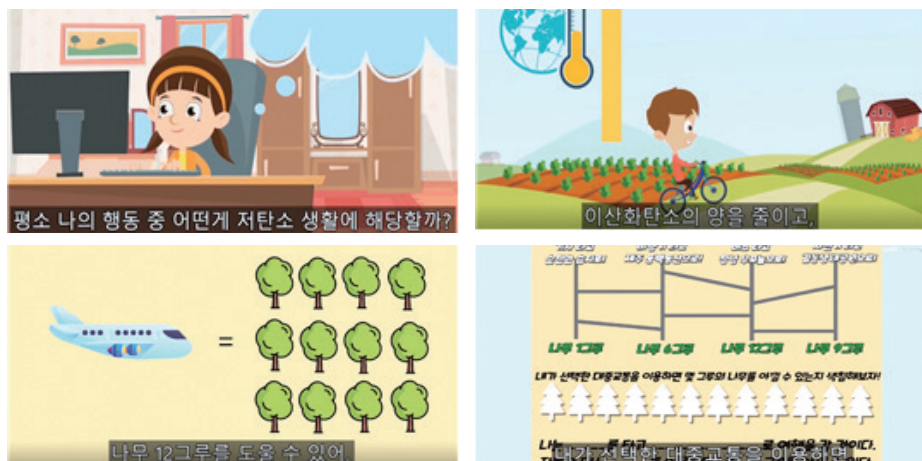
4조 그린나래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탄소 관광을 통해 친환경 생활 방안 알아보기

- (1)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한다.
- (2) 친환경 생활방식을 배우고 실천을 다짐한다.
- (3)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독려한다.

○ 1차시 영상 교육

준비부터 다녀 온 이후 정리까지, 여행은 일상생활의 축소판입니다. 장을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까지 일상의 실천을 여행이라는 주제 안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보여 주고자 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대상이 되는 3-4학년 또래의 여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담임 선생님, 남동생과의 대화를 나누는 친숙한 상황 속에 학습내용을 녹여내어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차시 수업 활동

영상을 보면서 '친환경 여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배운 아이들이 '저탄소 여행 계획표' 학습지활동을 하며 어떤 친환경 여행을 하고 싶은지 직접 작성해보았습니다. 활동지 이후에는 영상 속에서 배운 주요 개념들을 초성퀴즈를 통해 다시 한 번 복습해보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만드는 초록빛 지구

- (1) 환경문제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시킨다.
- (2)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 1차시 영상 교육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중점으로 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아이들이 교육영상을 시청하며 에너지 소비에 따른 소나무 수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해서 일상 속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의 관계에 대해 더욱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를 통해 발전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소개하고 실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움직이는 '꼬마 태양광 자동차 키트'를 함께 영상을 보며 만들어볼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 2차시 수업 활동

교육영상을 모두 시청한 뒤, 아이들에게 '꼬마 태양광 자동차 키트'를 하나씩 나누어주어 앞서 본 교육영상 속 가이드라인을 다시 참고하여 만들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신재생 에너지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습지					
이름: _____					
매달리는 한해 동그라미를 하고, 동그라미 한 부분씩은 소나무 수를 다 더해봅시다.					
일주일 기준					
활동/노 드레 사용 시간	3시간 미만	7시간 미만	10시간 미만	14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작은 소나무 13주	큰 소나무 13주	큰 소나무 13주	작은 소나무 13주	큰 소나무 33주
TV 시청 시간	3시간 미만	7시간 미만	10시간 미만	14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큰 소나무 13주	작은 소나무 13주	큰 소나무 43주	큰 소나무 53주	작은 소나무 13주
확장실	7번	10번	14번	21번	22번 이상
	큰 소나무 43주	큰 소나무 53주	작은 소나무 13주	큰 소나무 113주	작은 소나무 13주
	2번	4번	6번	7번	8번 이상



팀별 초등교육
콘텐츠소개

6조 비그림팀

그린 스쿨 라이프 스타일 - 食(식)

- (1)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상황에 대해 알리고, 미래세대로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린다.
- (2)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식생활의 변화에 대해 알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지 알린다.
- (3) 학교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라이프 스타일을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게끔 유도한다.

○ 1차시 영상 교육: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가운데 ‘食(식)’을 중점으로 제작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농장에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 과정과 그 가운데 발생하는 온실기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했습니다. 특히, 교육대상이 되는 부천중앙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부천의 로컬푸드에 대해 알려주어 일상에서 더욱 밀접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 2차시 수업 활동:

학교생활 중 ‘食(식)’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생각 해볼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메뉴 만들어보기 활동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큰 육류보다는 채소를, 수입재료보다는 로컬푸드 위주로 메뉴를 짤다면 식생활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느끼는 ‘음식’에 대한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플라스틱)와 ‘오호 만들기’를 통해 알아보는 대처 방안

- (1)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2) 플라스틱으로 인해 심각해진 환경오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3) 환경일지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찾아 실천해 볼 수 있다.

○ 1차시 영상 교육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하고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내가 매일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지’까지 단계적으로 알 수 있는 교육 영상입니다. 플라스틱과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호’라는 친환경 액체 주머니 만드는 실험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 2차시 수업 활동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을 영상을 통해 공부한 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 통장’과 ‘환경 일지’ 작성을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환경 통장’은 내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해보는 활동지이고, ‘환경 일지’는 앞으로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환경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약속들을 적는 활동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직접 본인의 모습을 검토해본다는 것이 활동지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팀별 초등교육 콘텐츠소개

8조 CSI팀

해양 생태계와 플라스틱의 관계, 이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 (1) 플라스틱 사용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느낄 수 있다.
- (2) 플라스틱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2개 이상 말할 수 있다.

○ 1차시 영상 교육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사용을 덜 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방법은 아직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에겐 생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 영상은 ‘어떻게 하면?’에 집중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상황을 주고 1번과 2번 중 어떤 선택이 옳을지 직접 선택하는 콘텐츠로 영상을 구성해서 아이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흥미 넘치는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 2차시 수업 활동

플라스틱을 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영상을 시청한 뒤, 아이들이 이러한 방법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자신만의 다짐을 담은 ‘포스터 그리기’ 활동을 했습니다. 완성한 포스터 아래에는 부모님, 친구들 등 동참할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아이들이 스스로 다짐한 캠페인을 직접 이끌어갈 수 있게 유도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친환경적이지 않은 식생활, 친환경적인 식습관

- (1) 사람들의 식생활 중 친환경적이지 않은 일상생활을 알아보고,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실천한다.

○ 1차시 영상 교육

교육영상을 시청하는 아이들이 주인공인 Climate Scouts 요원과 함께 지구에 사는 동물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을 돕는 흐름으로 구성된 콘텐츠입니다. 소, 오랑우탄, 거북이 총 세 마리의 동물들이 영상에 등장해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각자의 고민을 털어 놓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해결방안을 생각해서 배부된 활동지에 적게 하여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동물들의 고민을 모두 들은 뒤에는 '새활용(업사이클링)'을 소개하여 새로운 개념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 2차시 수업 활동

영상 후 활동으로는 교육영상 마지막에 소개된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쉽게 버려지는 우유팩을 이용해서 벨크로 스티커를 붙인 지갑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단순히 지갑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 까지가 새활용의 포인트라는 점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팀별 초등교육 콘텐츠소개

10조 플레이어팀

심리테스트를 통해 알아보는 지구를 지키는 유형

- (1)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지구가 고통 받고 있음을 알고, 환경보호 활동이 환경오염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진자료와 동영상상을 통해 학습한다.
- (2) 심리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유형 별로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행동들을 알고, 실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익힌다.
- (3) 수업을 통해 배운 활동들 중 자신이 직접 실천할 수 있을 활동을 고르고, 지구를 지키는 행동을 직접 실천해 지구를 지키는 습관을 함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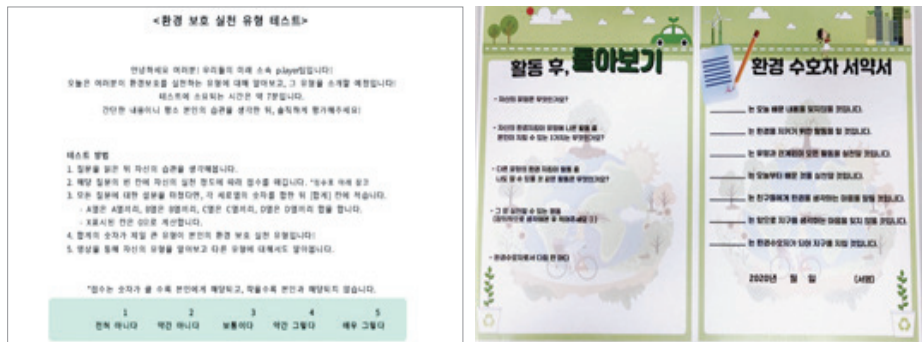
○ 1차시 영상 교육

아이들이 대개 재미있어하는 ‘심리테스트’ 형식을 이용하여 자신과 가장 어울리는 환경지킴이 유형을 알아보는 것을 중심으로 한 교육영상입니다. 사전에 심리테스트지로 자신의 유형을 파악한 뒤, A~D, 총 4가지의 유형 설명과 각 방법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차시 수업 활동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환경 보호 실천 유형 테스트>를 먼저 해서, 자신의 환경지킴이 유형을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영상을 모두 시청하고 난 뒤에는 ‘활동 후, 돌아보기’ 활동지를 하며 자신의 유형을 참고해서 어떤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을지 스스로 적어보았고 ‘환경 수호자 서약서’를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짐할 수 있게 유도했습니다.



생활 속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바르게 폐기하기

- (1) 플라스틱 사용 감축의 필요성과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알기
- (2)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감축과 올바른 분리배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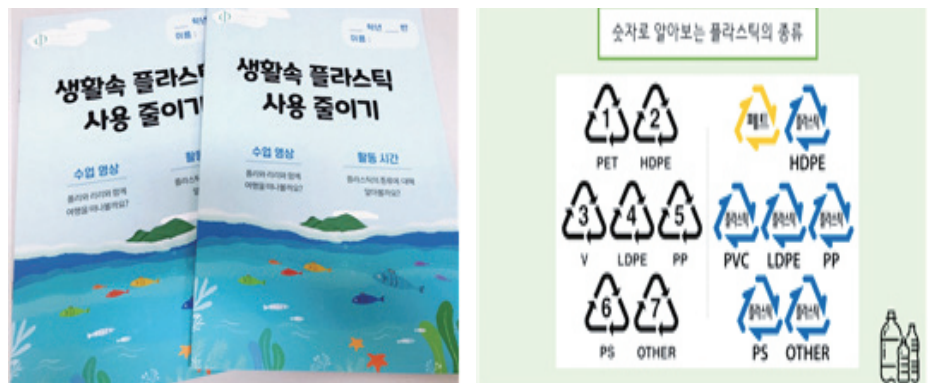
○ 1차시 영상 교육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나온 ‘폴리’와 ‘리리’ 라는 두 캐릭터와 함께 지나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친구들 생일파티와 같이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하는 상황 몇 가지를 제시하고, 그 상황마다 일회용품 소비와 관련한 선택지들 중 옳은 방법을 고르는 TPO퀴즈를 내용으로 한 교육영상입니다.



○ 2차시 수업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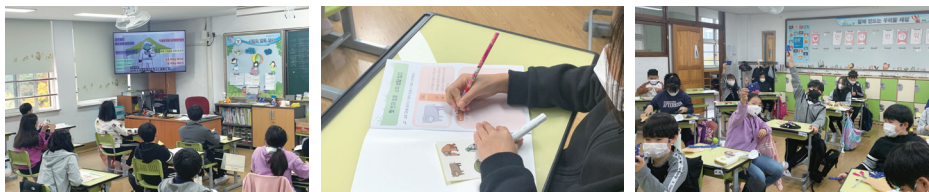
교육영상을 모두 시청한 뒤, PPT 영상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플라스틱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종류가 갖는 특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각 종류에 따른 재활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후에는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학습지를 통해 앞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초등교육 실시간 현장 수업

부천중앙초등학교 4학년 1반

- 일시: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3교시 10:50am - 11:30am
- 장소: 부천중앙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
- 주제: 친환경적이지 않은 식생활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
- 교육영상 타이틀: 식생활과 기후위기
- 활동 내용: 동물 구하기 활동지, 우유팩으로 지갑 업사이클링 활동(만들기)



부천중앙초등학교 4학년 1반 아이들과 함께 9조 별새팀의 '식생활과 기후위기' 수업을 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1차 수업에서 교육영상을 통해 평소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학습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영상을 시청하며 동시에 동물들을 기후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활동지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2차 수업에서는 줌을 이용해 다 마신 우유팩으로 지갑을 새로 만들어 보는 '새활용(업사이클링)' 활동을 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4학년 1반 아이들은 한 단계씩 화면 속 선생님과 직접 소통해가며 모두 새활용 지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중앙초등학교 3학년 1반

- 일시: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10:30am - 11:10am
- 장소: 부천중앙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
- 주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교육영상 타이틀: 뭐가 '먼지' 모르겠네.
- 활동 내용: 활동지, 곡물로 알아보는 미세먼지 크기 알아보기,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부천중앙초등학교 3학년 1반 아이들과 함께 3조 SEESTAR 팀의 '뭐가 '먼지' 모르겠네.' 수업을 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전에는 체감할 수 없었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왜 우리 몸에 나쁜지와 어디서 나오는 먼지인지를 교육영상을 통해 재미있게 설명해주었습니다. 특히, 조미료 통에 다양한 크기의 곡물을 넣어 분리해보는 활동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았는데, 아이들은 그날의 수업 중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차 영상 수업이 끝난 뒤, 줌을 이용해 온라인 실시간으로 Climate Scouts 선생님과 함께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후로는 3조 SEESTAR 팀이 준비한 선물인 '공기정화 식물'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친환경적으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수업 이후로도 계속 미세먼지 대응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IV. 활동 내용

2. E-book



Place People Practice

2020
Climate Scouts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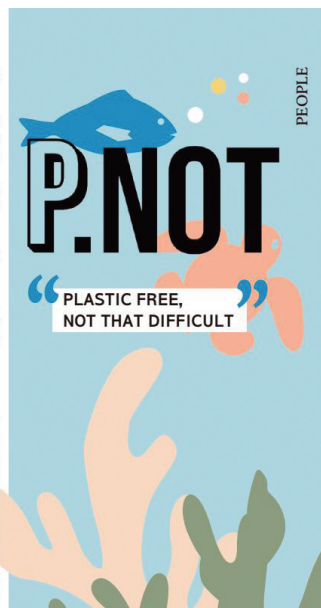
P.NOT을 보고 사람들이 느꼈으면 혹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P.NOT을 보고 대학생들도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만큼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일 하나라
도 실천했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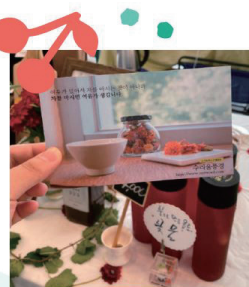
또한, 저런 방법으로도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로 플라스틱을 비롯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해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에 많은 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기 마련이에요.
텀블러 사용하기, 빨대 사용하지 않기, 일주일에 몇 번은
채식하기 등 작은 일이라도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농부시장



열장, 앞모임의 계획

종간기 대표는 열장이 판매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환경과 생태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기농, 온실무드는 비건이나 채소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자 하는 친환경적 가치를 가진 적극적인 구매층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으로서 매출을 내기 위해
열장은 규모를 키워왔고, 더 많은 고객과 만나 판매가 되어
여러 농부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열장의 계획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 사회요인으로 인해, 더
이상 규모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이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꼭 아끼기 아니더라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전대이나 마케팅을 활용해 큰 플랫폼
을 하나씩 분리하는 구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표는 "유명해지기"인데, 대우받는 플랫폼이 되어서
열장에 훌륭한 운영진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열장의 농부 이야기 ”

열장을 둘러보면, 참가한 농부들의 품목 중 겹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덕분에 한 곳 한 곳에서 모두 새로운 상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열장의 농부 산장 기운을 통과
한 만큼, 열장에 참여한 모든 농부들에게는 상품에 대한 자부
심이 가득합니다.
판매 계획을 위해 열장에 참여했다는 농부 '부엌이네 오솔길'
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열장 덕분에 열제
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귀농 이후 판매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치며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만 열장을 보류하고, 즉각적인 구매가 점점 줄어드는 실정
에서 온라인 판매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 열장의 소비자 이야기 ”

열장을 방문하는 소비자 역시 환경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구매를 할 때 비닐봉투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농부가 종이봉투를 판매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것도 아껴야죠.”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판매하는 사람도, 구매하는
사람도 판매용으로 실천하는 이 곳 열장은 '열장의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2020 Climate Scouts의 E-book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된 활동으로 <P.P.P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타이틀로 제작되었습니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체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자 Place, People, Practice의 세 개의 분야를 선정하였고, 각 분야 내 활동 기관, 개인 혹은 장소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 E-book 다운로드 링크: http://ourfuture.kr/?page_id=1093&uid=436&mod=document

팀별 인터뷰 대상

팀	카테고리	인터뷰 대상
1조 A.N.D. 팀	Place	<반짝반짝 지구상회> “제주 바다의 쓰레기 문제를 예술로!”
2조 ACT 팀	People	<P.NOT> “플라스틱 없는 행사, 플라스틱 프리 문화 트렌드에 주목하다!”
3조 SEESTAR 팀	Practice	<UNEP Plant for the Planet> “초록 지구를 위한 1조 그루 나무 심기”
4조 그린나래 팀	Place	<얼굴있는 농부시장> “지속가능한 농업을 향한 소통의 장”
5조 그린윌어스 팀	Place	<보틀팩토리> “우리 동네 세척소”
6조 비그린 팀	Practice	<오스테드 코리아> “친환경 에너지를 향한 바람을 불러오는 기업”
7조 쓰담 팀	E-book 기획 및 디자인	
8조 CSI 팀	Place	<아름다운가게> “진짜!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이루는 공간”
9조 별새 팀	People	<작가 김한민> “사랑하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작가”
10조 플레이어 팀	People	<환경전문가 양진운> “행동으로 시작하는 기후변화 대응”
11조 Y.E.S. 팀	Practice	<그린피스 용기내 캠페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것”



IV. 활동 내용

3. 기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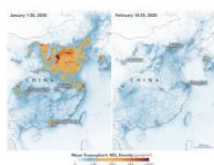
Young Professional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주제 아래 전문성을 함양하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Climate Scouts는 팀마다 한편의 기고문을 작성 및 게시했습니다. 팀 기고문은 '클라이밋 타임즈' 홈페이지 내 Young Voices 탭에 공개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는 팬데믹과 기후위기, 폐기물 등 코로나19 시대에 입각해서 바라본 기후위기 이슈들을 다룬 시의성 있는 기고문들이 작성되었습니다.

기고문 웹페이지: <http://climatetimes.org/?cat=16>

팀별 기고문 타이틀

팀	기고문 타이틀
1조 A.N.D. 팀	“신재생에너지 정착을 위해서는 에너지 넘치는 네트워크 구축부터!”
2조 ACT 팀	“기후변화 해결, 임(林)과 함께”
3조 SEESTAR 팀	“코로나19의 역설-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팬데믹”
4조 그린나래 팀	“환경을 생각하는 슬기로운 의생활”
5조 그린윌어스 팀	“‘우리’들의 미래, ‘기업’과 함께”
6조 비그린 팀	“팬데믹이 초래한 폐기물 재앙, 우리의 미래는?”
7조 쓰담 팀	“지구의 한계, 마주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때”
8조 CSI 팀	“바다를 질식사킨 플라스틱“
9조 별새 팀	“당신의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이, 지구를 불타게 한다.”
10조 플레이어 팀	“그린워싱, 소비자가 그 중심에 서야 할 때”
11조 Y.E.S. 팀	“엮힌 기후 위기에 덮친 환경 불평등”

YOUNG VOICES



코로나 19의 역설 - 코로나 19팬데믹과 기후변화 팬데믹

Young Voices 2020년 9월 1일

Climate Scouts 5기 3조 SEESTAR (김나현, 김택인, 안혜진, 정수현, 정승환) 2020년, 이전까지 쌓아왔던 인류의 행동 체계를 한순간에 바꾸어 버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보고된...



‘우리’들의 미래, ‘기업’과 함께

Young Voices 2020년 8월 26일

Climate Scouts 5기 5조 그린윌어스 (곽정원, 명영재, 윤찬주, 이지호,





IV.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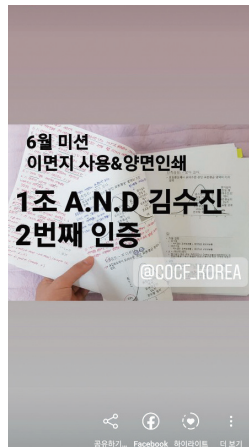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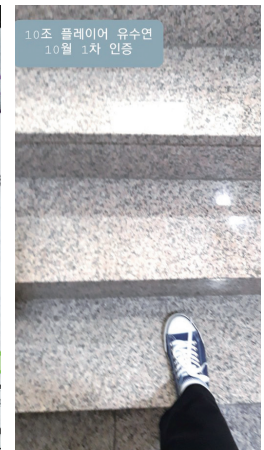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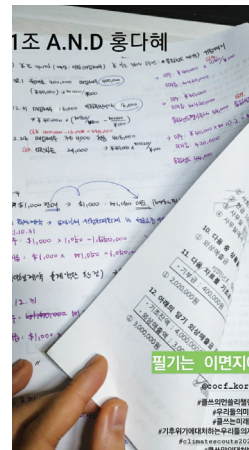
4. 먼슬리 챌린지

2020 Climate Scouts는 #클쓰의먼슬리챌린지를 통해 매달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였고, 실천 내용을 SNS 플랫폼에 업로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보호 행동을 홍보하였습니다.



Climate Scouts의 먼슬리챌린지 미션

Month	Monthly Challenge Mission
4월	머그컵, 리유저블 컵, 텀블러 사용하기
5월	장을 보거나 물건을 구매할 시 에코백 혹은 장바구니 사용하기, 포장지 사용하지 않기
6월	이면지, 양면인쇄, 재생종이 사용하기
7월	올바른 분리수거하기 (페트병 라벨제거, 노트북 스프링 제거, 택배상자 테이트 제거 등)
8월	음식물 남기지 않기
9월	'Meat-Free Month' 붉은 고기 먹지 않기
10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IV. 활동 내용

5. SNS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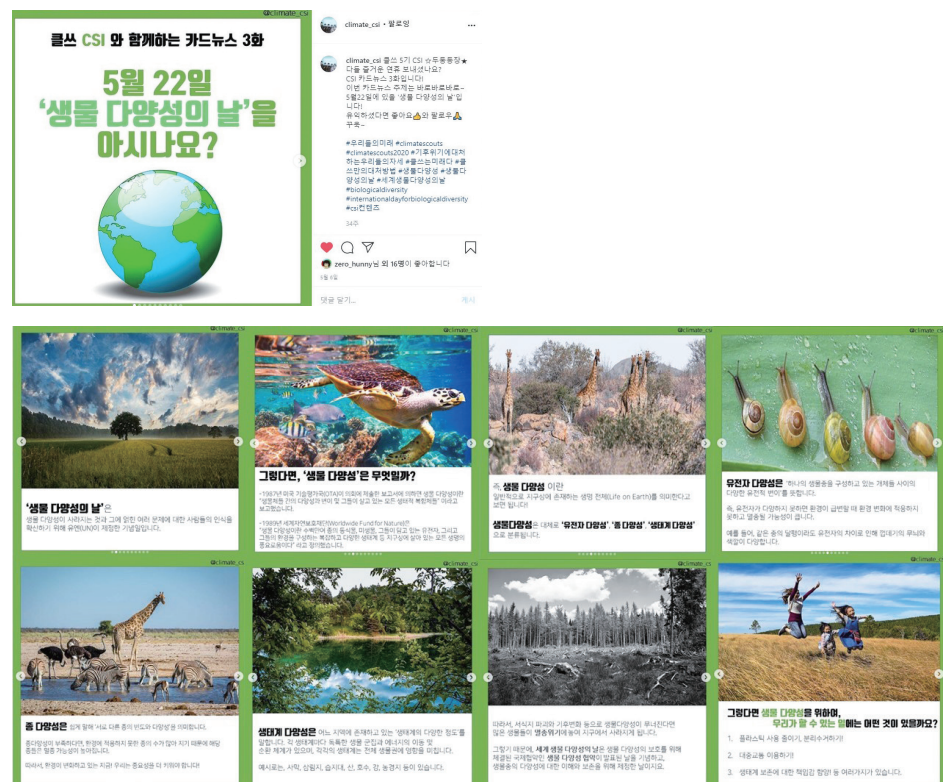
2020 Climate Scouts 팀 활동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카드뉴스를 만들어 각 팀의 SNS 채널에 공유했습니다. 환경 관련 지정일 홍보 카드뉴스부터, 각 팀이 집중하고 있는 관심주제에 대한 시리즈 카드뉴스까지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9조 별새팀 카드뉴스 중



8조 CSI팀 카드뉴스 중





IV. 활동 내용

6. Voice from the Young



정선포럼2020

2020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정선포럼2020에서 (사)우리들의미래는 청년연계 세션, Youth Impact: Voice from the Young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연계세션은 (사)우리들의미래 Climate Scouts 5기(4명), (사)강원국제회의센터 G-MICE KEY 7기(2명)의 청년패널이 참여해 <청년이 이끌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영문: Youth Forward: The Future of Sustainable Society)>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일시: 2020년 8월 20일(목), 16:30 - 18:00
- 장소: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6층 다이아몬드홀
- 주제: 청년이 이끌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Youth Forward: The Future of Sustainable Society
- 주관: (사)우리들의미래
- 주최: (사)우리들의미래, (사)강원국제회의센터



Climate Scouts를 포함한 6명의 청년 패널들은 Young Professionals로서 각자의 전문분야를 살린 이슈발표 후, 앞으로 이들이 이끌어갈 미래가 더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2020 Climate Scouts 9조 별새팀 김수현>

<2020 Climate Scouts 2조 ACT팀 박소영>

<2020 Climate Scouts 1조 A.N.D.팀 김수진>

<2020 Climate Scouts 6조 비그린팀 강예리>

제 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20

제 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20에서 (사)우리들의미래와 제주연구원, Common Home of Humanity가 공동주관으로 '지구시스템과 기후위기: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방안'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인지시키고 향후 기후위기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실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후위기 거버넌스 체제 강화를 위한 담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 일시: 2020년 11월 6일(금), 13:20 - 15:00
- 장소: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 1,2
- 주제: 지구시스템과 기후위기: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방안
The Earth System and Climate Crisis: Seeking Stronger Global Governance
- 주관: 제주연구원, (사)우리들의미래, Common Home of Humanity

세션 연사들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 진행된 플로어 토론에서 Climate Scouts 김수림과 전서찬 청년 대표 두 명이 무대 위로 초청되어 기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두 명의 청년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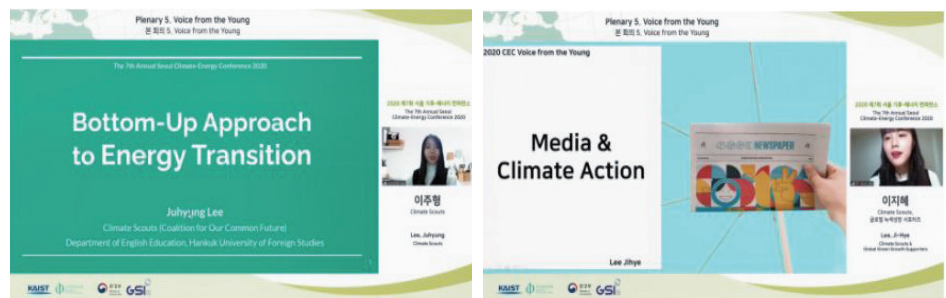
The 7th Annual Seoul Climate-Energy Conference 2020

2020년 11월 27일(금) 제 7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가 (사)우리들의미래와 KAIST 녹색성장대학원의 주관 아래 개최되었습니다. '기후위기시대의 녹색금융과 녹색창업'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학계, 정부, 산업계,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가 가속화된 시대를 금융과 창업에 입각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는 코로나 19 상황 속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YouTube를 통해 실시간 송출되었습니다.

-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09:00 - 15:10
- 주제: 기후위기시대의 녹색금융과 녹색창업
Green Finance and Business Creation in the Climate Crisis Era
- 주관: (사)우리들의미래, KAIST 녹색성장대학원
- 후원: 환경부, KAIST 글로벌전략연구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는 매년 기후위기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갈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Voice from the Young 세션에서는 청년들이 기술, 에너지, 미디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어떤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2020 Climate Scouts 11조 Y.E.S.팀 이주형 패널은 현재 한국에서는 석탄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변동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공론화 과정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시민, 청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지혜 Climate Scouts 2-3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한국에 아직 기후변화, 환경 이슈 중심의 미디어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이슈에 대한 보도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캠페인, SNS를 통한 네트워킹, 뉴스레터 서비스 등 일상 미디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V. 활동 소감

9조 벌새팀 김민선

“

... 기후위기 해결 촉구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많은 방식들 가운데 Climate Scouts 활동을 통해서만 교육, 카드뉴스 제작, 기고문 작성, 인터뷰 진행, e-book 발간 등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Climate Scouts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후위기 해결에 동참하고 싶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싶다. 무엇보다 어느새 친환경적인 삶을 지향하게 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이 느껴진다.

”

1조 A.N.D 팀 서은채

“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경우는 몇 번이나 있을까?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매번 간접적으로는 많이 들어왔지만 당장 위급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

Climate Scouts 활동을 통해 #클쓰의면슬리챌린지를 하면서 일상에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나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종이 한 장을 쓸 때도 신중함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을 찾게 되는 행동을 스스로 시작하게 되었다...

”

10조 플레이어 팀 김수림

“

다양한 활동들로 여러 분야에 간학문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다. ... 제일 인상 깊은 것은 내 블로그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매번 카페를 갈 때마다 텀블러를 챙기신다는 이웃님의 댓글이었다. 내가 올린 작은 포스팅이 타인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의 원천인 씨앗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



1조 A.N.D 팀 홍다혜

“

... 이미 기후위기에 대해 인식한 사람들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느끼며, 그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있었다.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나는 이런 사소한 정보조차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알아서 환경을 위한 작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고, 주변에 알리기도 한다. ...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예전의 나였다면 이런 말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

결국 Climate Scouts 활동이 나에게 자신감이 된 것이다.

”

6조 비그린 팀 지혜진

“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고, 미래세대에게 위기의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참여한 활동이었다.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 학습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전문가 분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해갈 수 있었다. ...

우미래와 Climate Scouts 프로그램 덕분에 2020년에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지 않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었다.

”

9조 별새팀 김혜인

“

기후변화라는 대주제 속에서도 각기 다른 여러 주제로 팀별 활동이 가능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다양한 결과물이 이번 활동을 통해 탄생하게 된 것 같다. ... 초등교육 기획, e-book 제작, 기고문 작성은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Climate Scouts 활동이 올해 가장 큰 기쁨과 성과가 될 것 같다.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층 더 깊은 지식과 이런 지식이 실제 사회에서 접목되는 방법을 배워 더 뜻깊은 활동이었다.

”



ADDRESS.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9호관 9413호

T E L. 02-3478-9194

EMAIL. coalition4@ourfuture.kr

W E B. www.ourfuture.kr